엎치락뒤치락 K리그1 순위표 '균열'

하나원큐 K리그1 2022 1위 울산~12위 성남
상하위 스플릿 결정까지 예측불허 승부 예고

K리그1 2022 순위표가 정규 4개 라운드를 남겨놓고 정리되기 시작했다. 1위 울산현대서부터 12위 성남FC까지 동일 승점이 없이 나란히 정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 팀, 약 팀 구분할 것이 예측불허의 승부가 전개되고 있어 상하위 스플릿이 결정되는 순위는 33라운드가 끝나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29라운드가 끝난 지난 4일 현재 K리그1 순위는 울산(59점)을 필두로 전북현대(51), 포항스틸러스(48), 인천유나이티드(44), 제주유나이티드(42), 강원FC(39)가 상위 스플릿에 포함되는 6위까지 포진했다. 이어 수원FC(37), FC서울(36), 수원삼성(33), 김천상무(28), 대구FC(28), 성남(24) 순이다. 28라운드가 종료된 후와 비교하면 순위는 변동이 없지만 중위권 4팀간의 승점차가 조금씩 벌어지거나 좁혀진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의 각 팀별 전력에 의하면 울산과 전북, 포항 순으로 1~3위가 정해지는 분위기다. 그리고 인천과 제주가 3위 포항을 추격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언제든지 중위권 팀들의 추격권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최하위 성남의 반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과 수원삼성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순위표가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남은 4일 열린 울산과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반면 대구는 12경기 무승의 전적으로 리그 11위까지 추락했다.

순위권 결정에 가장 큰 변수는 초반 부진에서 벗어나며 순위를 끌어올리는 강원과 수원삼성의 상승세이다. 양 팀 모두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챙기며 상위 팀들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강원은 남은 정규라운드 상태가 낮은 순위의 팀들이어서 현재 6위에서 그 이상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삼성도 울산, 인천, 포항, 전북 등 상위권 팀들과의 대결을 남겨 놓고 있지만 최근의 상승세를 감안하면 상위권 판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하위 성남의 강등권 탈출 노력과 병행해 10위 김천과 11위 대구의 막판 저항 역시 매라운드 초접전 양상을 기대케 하고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제50회 추계 초·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우수선수 해외파견 선발전 겸 유도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모습.

부활 제주유도 메달 수확의 계절

제50회 추계 초·중·고등학교 연맹전
남녀 중·고등부 금 6, 은 6, 동 5 획득

제주유도가 제50회 추계 초·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우수선수 해외파견 선발전 겸 유도대회에서 금 6, 은 6, 동 5개 등을 획득하며 절정의 기량을 뽐냈다.

강주연(남녕고 1)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충북 제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70kg에서 전 경기 한판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주연은 1회전에서 이주은(충북체고)을 되치기 절반과 누르기 절반으로 한판승을, 2회전에선 김희수(주산산업고)에게 허벅다리걸기 한판승을 거뒀다. 준결승전에서 이선아(파이널유도멀티짐)에게 되치기 절반과 뒤허리안아 메치기 한판승을, 결승전에선 강민주(진량고)를 뒤허리안아 메치기 절반과 허리채기 절반으로 한판승을 따냈다.

남고 1학년부 -66kg의 고지운(남녕고 1)도 1회전에서 정일권(경민고)에 기권승을 거둔 뒤 2회전부터 결승전까지 모두 한판으로 승리하며 동급 최강의 자리에 올랐다.

또 올해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여중부 -48kg의 강여원(신산중 3)과 남중 3학년부 -60kg 이재준(신산중 3)을 비롯 남중 1학년부 -60kg 홍지운(신산중 1), 남중 1학년부 +90kg의 이진혁(중앙중 1)도 금메달 대열에 합류했다. 조상윤기자

제주Utd, 인천 제압하고 순위 바꾼다

K리그1 2022 30R '유나이티드 더비'
오늘 오후 7시 제주월드컵경기장서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인천 유나이티드를 넘어 4위로 올라선다.

제주는 6일 오후 7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2 30라운드 홈 경기에서 인천과 격돌한다. 현재 제주는 11승 9무 9패 승점 42점으로 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다. 4위 인천과의 격차는 승점 2. 이날 경기서 인천을 제압하고 4위로 올라서면서 선두권을 향한 추격의 고삐를 당긴다는 계획이다.

제주는 올 시즌 인천과의 상대전적에서 1승 1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두 경기 모두 2골을 넣었다. 슈팅을 이끌어내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키패스도 승리의 초대장이었다. 제주는 올 시즌 키패스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9경기에서 총 152개(경기당 5.24개)를 수확했다.

특이한 점은 키패스 TOP10에 이름을 올린 제주 선수는 1명도 없다. 하지만 이창민, 제르소, 주민규(26개)가 공동 12위에 올랐고, 전 포지션에 걸쳐 찬스 연출에 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최전방에서 3선까지 다양하고 날카로운 패스 줄기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키패스의 영점이 정교해지면 득점 단독 선두 주민규는 더욱 치명적으로 변모한다. 주민규는 2시즌 동안 인천을 상대로 6골을 작렬했다. 멀티골은 두 차례 기록했다. 지난 2일 수원FC(2-2 무) 원정에서 보여줬듯이 공격 진영에서 콤비네이션 플레이까지 더해진다면 화력의 세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남기일 감독은 "인천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순위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다. 찬스를 만드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마침표를 확실하게 찍어야 한다. 선수들의 유기적인 호흡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유기적인 팀워크를 통해 승부처에서 반드시 웃겠다"라고 전의를 불태웠다. 조상윤기자

제1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에 출전한 제주 배드민턴 선수단.

제주 첫 출전 금 4·은 1·동 3개 수확

제1회 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제1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선수단이 금 4, 은1, 동 3개를 수확했다.

선수단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배드민턴 스탠딩남자복식에서 김성건, 라용균이 우승을 차지했다. 또 휠체어혼합3인조에서 강경철, 박제석, 고일형이 우승을, 박진만, 강미영, 송종훈은 3위를 차지했다.

제이볼 볼링장에서 열린 볼링 시각 남 2인조(장태진, 이성우)와 시각 여 2인조(장수정, 이미숙)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스탠딩 여 2인조(김옥희, 이주희)에서는 3위에 입상했다. 또 인천문학경기장 강당에서 치러진 당구 스탠딩3쿠션 남2인조(부희찬, 오경호)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된 탁구 휠체어 남자복식에서 김대겸, 장은석조가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스탠딩 남자복식 2인조에 참가한 천일웅(39년생)은 이번 대회 15개 시·도 선수단 중 최고령으로, 8강전에서 인천팀에게 2:3으로 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조상윤기자

생활체육 보디빌딩·수영 '선전'

문체부장관기·생활체육대축전

엘리트 체육 못지않게 생활체육도 저변이 확대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보디빌딩협회(회장 신소야)는 지난 3일 세종시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보디빌딩대회에서 송용학(-70세부)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5일 밝혔다. 또 45세급에 출전한 김경복은 은메달을 따내며 지난 생활체육 대축전에 이어 다시 메달을 획득했다.

생활체육수영에서도 제주선수단의 선전이 이어졌다. 제주선수단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대부동에서 열린 2022년 생활체육대축전 수영대회에서 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중등부의 임동현은 자유형 50m와 접영50m에서 우승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여자초등 3부의 나원영은 배영50m에서, 남자 초등부 2부 김창헌은 배영5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초등 3부 최진하는 평영50m, 성인3부 배영50m의 박태호는 은메달을 수확했다. 여자 초등부 2부 평영50m의 박민서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조상윤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5:00 KBS 뉴스특보 태풍 힌남노 8:00 KBS 뉴스특보 태풍 힌남노 10:00 KBS 뉴스특보 태풍 힌남노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해 볼만한 아침 M&W 1부 8:10 해 볼만한 아침 M&W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으라차차 내 인생(재)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법대로 사랑하라(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다큐 M 스페셜 8:50 비밀의 집(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꾸러기 식사교실(재) 11:15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11:45 프린세스 바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4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8:50 띠띠뽀 띠띠뽀 9:05 슈퍼두퍼 잉글리시 9:40 우리집 유치원 13:00 당신의 활력충전소 15:35 레전드 히어로 - 삼국전 16:40 딩동댕 유치원 18: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19:50 극한직업
12:00 특집 KBS 뉴스 12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4:10 보물섬(재) 15:00 콘텐츠 안테나(재) 15:50 고를말 이수다 16:00 사사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5 개는 훌륭하다(재) 13:50 영화가 좋다(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캐치! 티니핑(재) 15:30 TV 유치원 16: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6: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MBC스포츠 2022 KTA 다이내믹 태권도 파이널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뽀뽀뽀 좋아좋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지구촌 세상속으로	12:00 SBS 12 뉴스 12:50 식자회담 국가발전 프로젝트(재) 14:00 화첩기행 15:00 역전다방 16:00 혼자옵서예(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저녁 뉴스 17:50 신발 벗고 돌싱포맨(재)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보물섬 20:30 으라차차 내 인생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제49회 한국방송대상 대상 수상작 시사기획 창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황금가면 20: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21:50 법대로 사랑하라 23:00 오케이? 오케이!	18:05 TV매거진 타임라인 19:05 비밀의 집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특집 김민재, 더 몬스터 22:00 PD수첩 23:00 놀면 뭐하니? 스페셜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2:10 신발 벗고 돌싱포맨 23:30 식자회담- 국가발전 프로젝트	

KCTV
7:00 KCTV 뉴스
8:00 여왕의 레시피
8:30 탐나는 보이스
9:00 KCTV 뉴스
9:30 챌린지 퀴즈챔프
10:30 낭만읍 고향리
13:10 쌩미얼아매놀이단 축제로구나
14:30 탐나는 보이스
15:20 챌린지 퀴즈챔프
17:30 배워봅서 관광중국어
19:00 KCTV 뉴스7

제주CBS FM 93.3MHz 90.9MHz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낮종합뉴스
14:05 송정미의 축복송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7:30 생명의 샘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판승부

TBN제주교통 FM 105.5MHz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2:00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0 달리는 라디오
20:00 탐나는 가요

운세

오늘의 운세 6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채우려는 욕망이 강하고 부족함을 한탄한다. 48년 자녀 또는 부하직원에 대한 희소식 있다. 60년 경솔하게 행동하면 구설이 따르고 동료의 미움을 사게되니 언행 조심. 72년 부업 또는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무슨 일이든 하려는 욕망이 강하다. 84년 학문이나 국가자격증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낀다.

37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고, 어려운 일도 무난히 해결된다. 49년 업무나 맡은 임무를 대충하면 말썽의 소지가 발생하니 마무리를 잘하라. 61년 문서운이 길하나 재물에 지출 또는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기도. 73년 직업인은 활동이 분주하다. 85년 이성교제시 언쟁이 따르니 조심하라.

38년 무슨 일이든 하면 건강에 도움되고 금전이익이 있다. 50년 세일즈맨은 사방팔방 분주하며 주위에서 인정한다. 62년 내 행동을 상대가 오해하니 행동을 신중하게 할 것. 74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적극적 추진의 욕이 필요. 86년 내 주장을 너무 내세우면 주변과 충돌하니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지혜 필요.

39년 재물운이 있으며, 좋은 일이 생긴다. 51년 이동 이사가 있거나 변화가 생긴다. 부부간 신뢰가 필요하다. 63년 언쟁이나 다툼이 생길 소지가 많으니 필요 이상의 말은 하지마라. 75년 기술과 노하우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인정을 받으며 재운이 있다. 87년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봉사할 일이 주어진다.

40년 외출 또는 친목에 참여하게 된다. 52년 협력이 필요한 시기. 정보력을 동원할 것. 창업 또는 개업을 할 수도 있다. 64년 소신껏 일을 추진하면 의외의 결과가 있다. 76년 업무에 역량을 발휘하고 칭송이 있으나 집안에서의 걱정과 불화는 별개. 88년 부모와 언쟁이 오갈 수 있으니 말을 자제하는게 좋다.

41년 허세를 부리면 구설수에 오르니 필요한 말만 하고 행동을 자제. 53년 베푸는 만큼의 결과가 있다. 65년 벌과금 또는 생각하지 않은 재물지출이 생기니 차량운전시 조심. 77년 정보가 필요하고 정보에 의존해야 하니 필요한 자격증을 준비하라. 89년 이성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논쟁하면 불리.

42년 마음을 달래줄 벗 또는 손님이 찾아온다. 음주는 적당히. 54년 문서관련 일이 빠르게 추진된다. 차분한 검토와 병행 실천하라. 66년 변화 변동수가 있다.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라. 78년 도전의식에 결과로 보답 받는 형국. 분주하고 활동하라. 90년 시간이 지나면서 일, 생각이 호전되니 계획을 착실히 하라.

43년 돈에 이익이 있기도 하고 가야할 곳도 생긴다. 55년 초대를 받거나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67년 자식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 바쁜 하루 외출 시 운전조심. 79년 직장이나 취업소식이 있으며 이성교제나 소개팅은 좋지 않다. 91년 외출이나 활동할 일이 생긴다. 친구들의 반가운 소식을 접한다.

44년 감정을 억제하고 묵묵히 하는 일에 전념할 것. 56년 나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대인관계 길하다. 과음과 늦은 귀가는 삼가라. 68년 무리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 주어진 결과에 만족하라. 마음이 편해진다. 80년 이성교제나 친구 소개 미팅이 주선된다. 92년 의외로 일이 풀리거나 협조를 받는다.

45년 하던 일을 정리하고 자리를 이동하려 한다. 문서운 길. 57년 업무가 많아지나 기대치보다 매출이익이나 결과가 부실하다. 69년 자금지출이나 거래가 있다. 거절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하라. 81년 언행에 신중하라. 잘못된 말 한마디가 구설수를 만든다. 93년 형제간에는 언쟁이 오갈 수 있으니 말을 자제.

46년 자식이나 부하직원 때문에 예민해 질 수 있다. 스트레스 조심. 58년 목돈을 지출할 일이 생긴다.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라. 70년 재주를 인정받으니 자신의 장기를 발휘하라. 82년 전문업이나 자격소지자는 인정받는다. 94년 손재수, 자금지출이 있다. 분실수가 있으니 외출 시 금전관리 철저.

47년 무슨 일이든 하면 건강에 도움되고 금전이익이 따른다. 59년 건망증이나 분실할 일이 생기니 물건을 잘 챙길 것. 71년 분주하나 결과가 미약하다. 본인의 직관력을 믿어라. 83년 자기 능력 배양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전문지식도 넓히면 좋다. 95년 길이 막힌듯 하다. 답답해도 인내하면 오후에 일이 해소된다.

방송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